

[World Now] 쿠사마 야요이 in Berlin

ABROAD

2021 / 07 / 18

조재연

무한히 자라나는 물방울

<Yayoi Kusama: A Retrospective> 4. 23~8. 15

그로피우스바우



<A Bouquet of Love I Saw in the Universe> 혼합재료 가변크기 2021

"물방울 무늬는 내 트레이드 마크다. 모양과 의미는 중요치 않다. 작품은 나만이 볼 수 있는 환영에서 비롯한 삶의 표현이다. 나는 그 환영을 작업으로 번역한다." 트라우마에서 기인한 강박증을 예술로 승화하는 아방가르드의 거장 쿠사마 야요이(1929년생). 그로피우스바우가 기획한 이번 회고전은 그가 70년간 선보인 500개의 전시 중에서도 작가의 시그니처 전시라 평가받는 8개 전시를 소환했다.



<Aggregation: One Thousand Boats Show> 1963

1952년 마쓰모토 주민 센터에서 개최한 첫 개인전, 대표작 <-Infinity Mirror Room>을 처음으로 공개한 <Floor Show>(-뉴욕 카스텔란갤러리 1965), 나체 시위로 화제를 일으킨 <-Love Room>(헤이그 국제갤러리오레즈 1967), 한 건물의 인테리어부터 작품까지 총괄한 <Encounter of Souls>(도쿄 자르덴드루신 1983) 등.... 문헌, 사진, 평면도를 기반으로 당시 모습 그대로 구현한 공간에서 작가의 작업은 물론, 다채로운 공간 디자인도 함께 경험할 수 있다. 한편 지난 5월 19일에는 쿠사마 야요이의 일생을 담은 영화 <쿠사마 야요이: 무한의 세계>가 국내 개봉하기도 했다. 100세를 바라보는 작가의 예술세계를 조명하는 자리가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. / 조재연 기자



<Driving Image Show, Essen> 1966